

나주혁신도시,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국 최고

국토부 2012년~2017년 10개 혁신도시 성과·지역경제 영향 비교 사업체 수 35.7%·총 고용 수 63.2% 성장...여성 고용 최대 증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5년 동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 혁신도시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여성 고용 수,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 모두 가장 높았다.

17일 국토연구원이 올해 공개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가 유치한 기업 수는 총 391개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안에 유치한 기업은 278개였고, 모(母)도시(광주 등)에 유치한 기업은 113개였다.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인 지난 2012년에 비해 2017년까지 증가한 혁신도시 기업 수는 1570개로, 5년 동안 증가한 일자리 수는 1만355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모도시의 기업 수·일자리 증가율은 각

각 9.6%, 18.2%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혁신도시가 있는 시·군·구별 총 사업체 수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5626개였던 사업체 수는 지난 2017년 7633개로, 35.7%(2007개) 늘어났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훌쩍 넘겼고, 나주에 이어서는 충북(29.1%), 제주(20.2%), 강원(16.4%), 경북(14.9%), 대구(12%), 경남(11.4%), 전북(10%), 울산(8.8%), 부산(8.4%)이 뒤를 따랐다.

사업체 증가와 함께 혁신도시 지역에서 이뤄진 고용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 나주 혁신도시의 총 고용 수는 2만 8696명이었지만, 5년 뒤에는 4만6831명으로 무려 63.2%(1만8135명) 뛰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25%)를 크게 웃돌았고, 충북(38.3%), 경북(33.1%), 강원(32.5%) 등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체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23.4%), 제주(23.3%), 울산(22.9%), 부산(21.5%), 전북(17.4%), 경남(14.1%) 등 6곳이었다.

혁신도시 총 고용 수의 증가율은 여성 고용 증가율도 이어졌다.

나주 혁신도시 여성 고용은 지난 2012년 1만 2403명에서 2017년 1만8910명으로, 52.5%(6507명) 증가했다.

혁신도시 평균 여성 고용 증가율은 25.9%로, 나주 증가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상용 노동자 증가율도 나주 혁신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나주 혁신도시 상용 노동자 수는 3만2447명으로, 5년 전 1만8528명에 비해 75.1%(1만3919명) 증가했다.

전체 혁신도시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은 34.5%로, 올해 상용 노동자 수는 5년 전보다 13만9024명 증가한 54만1935명이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정도는 감소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난 2013년 진행된 직능수준 3 이상 고급인력 구인 수는 285명이었지만 4년 뒤인 2017년 구인 수는 261명으로, 오히려 8.4%(-24명) 떨어졌다. 이 같은 감소세는 경북(69%), 대구(43.6%), 전북(18.8%)를 제외하고 나머지 혁신도시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측은 고급인력 구인정도의 감소가 지역인재 채용을 정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26일 온라인 개최 세계 식품 트렌드 등 전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오는 26일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외식산업이 당면한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더 넥스트 푸드(미래의 식품)로,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 신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 기조강연은 세계적인 식품시장 조사기관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대표 패트릭 매니언(Patrick Mannion)이 '글로벌 식품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10가지 핵심 키워드로 2021년도 세계 식품 트렌드를 전망할 예정이다.

2부 주제별 강연에서는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산업 트렌드 전망과 내수·수출 전략, 비즈니스 노하우 등 식품·외식기업의 미래 사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국내 유명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와 식품외식트렌드 전문가 문정훈 교수가 식품·외식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전망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이용선 박사와 한국외식정보의 육주희 국장이 2021년도 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짜파구리' 제조사 농심 이용재 전무와 중국시장에서 호실적을 올리고 있는 서래스터의 서강현 팀장, 선도 IT기업 구글의 조용민 매니저와 국내 대표 식품업 O2O서비스 식신의 안병익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공냥짬뽕 부부'로 알려진 유튜브 흥운화, 김민기씨가 이번 전망대회의 홍보대사로 나서 전망대회의 주요 강연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행사 당일 aT 공식 유튜브채널(youtube.com/user/aTwebTV)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강연 연사들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사전참가 접수는 22일까지 aT 홈페이지(at.or.kr)를 통해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개선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콘텐츠 설명추가 등

전력거래소는 최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웹접근성 품질인증은 최근 정부의 공공홈페이지 웹 품질 관리계획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 품질을 인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시스템 사용자들의 웹접근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해 인증을 추진했다.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EC거래시스템(rec.kmos.kr) ▲신재생원스톱포털(onerec.kmos.kr)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홈페이지(der.kmos.kr) 등이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6월부터 정보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이외 콘텐츠 설명추가, 이미지 명도대비 조절, 키보드로만 홈페이지 사용가능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해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취득을 획득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재생에너지3020 정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수에 따라 전력거래시스템 사용자들도 급증하면서 사용자들의 보다 편리한 웹사이트 접근 및 사용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득을 통해 전력거래 업무가 보편적이고 공정한 웹서비스로 제공되는 성과를 맺게 됐다고 전력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어촌공사, 수질·토양분야 숙련도 시험 5년 연속 최우수

미국 환경자원협회 주관 수질 13개·토양 6개 부문

한국농어촌공사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수질 및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 각국 분석기관이 참여해 측정분석기관의 분야별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프로그램이다.

평가방식은 ERA에서 제공한 시료를 수질, 토양 등 항목별로 참여기관이 분석하면, 그 측정결과를 검증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수질 및 토양분야별 전체 항목에 대해 최우수(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으면서, 2016년 참여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질분야에서는 총 13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토양분야에서는 총 6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농어촌연구원 환경시험분석센터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등 5개 분야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보유한 환경시험 전문부서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수질 및 퇴적물 시료 분석 등 6만7000여 점의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5년 연속 수질과 토양분야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험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환경시험분석센터 연구원이 수질·토양 측정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문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이 제 몸을 한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개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新村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동근 보낸 뽀얀 사과

* 8월 발간
장영주 시집